

###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 창세기 38:1

그 후에 유다는 집을 떠난다. 성경은 정확하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갔다고 기록한다.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다. 형제들은 야비했고 슬픔에 빠진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다고, 하지만 나는 죽이지 말고 파는 것이 낫다고 했다고.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슬픔에 빠진 야곱을 대신해서 집안의 큰 일들을 맡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장자의 명분이 유다에게 상속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만형 르우벤은 아버지의 여인과 간음했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세겜에서 칼부림을 했다. 그 다음 순서는 넷째 유다였다. 첩의 자식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없었으니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은 후보 조차 되지 못했다. 요셉을 살리자는 만형 르우벤의 말에 형제들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지만 차라리 상인들에게 팔자는 유다의 말은 청종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아들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리더십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유다는 요셉에 관한 비밀을 가진 채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에 염증을 느꼈다. 차라리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과 친구가 되어 사는 쪽을 택했다. 그러나 이 선택으로 유다의 인생은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 창세기 38:2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동침하여 가정을 이루고 세 아들을 낳는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지 않았던 가나안 여자와의 혼인관계다. 그것도 아내로 삼았다거나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동침으로 시작된 관계였다. 유다 가정의 불행은 자식들에게 찾아왔다. 장남 엘은 악을 행하다가 그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엘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했다. 둘째 아들 오난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했다.

###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 창세기 37:8

둘째 아들 오난에게는 죽은 형을 대신하여 형수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을 책임이 있었다. 그렇게 태어나는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 상속자가 되고 과부가 된 어머니의 보호자가 될 것이었다. 이것이 형제의 의무였다. 오난은 형제의 의무가 싫었다. 형수와 육체관계를 가지면서도 임신을 피했다. 어차피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라 죽은 형의 자식이고, 죽은 형의 유산을 물려 받는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죽은 형의 재산은 둘째 오난의 몫이 된다. 그것을 노린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악했고 형제의 의무를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다. 유다의 형제들도 악했다. 서로를 보호해야 하는 형제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유다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죽지 않고 요셉만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다. 아직 유다를 포함해서 형제들 중 아무도 죽지 않았다. 생각할 것이 많은 사건이다.